

한국리서치 월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2018. 05

한국리서치 월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매월 정해진 기간에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현안조사-국정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현안조사는 한국리서치 전문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하며, 개별적인 문의에 대해 상시적으로 소통합니다.
- 국정지표는 해당 조사결과와 함께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박종선 수석부장

전화 | 02-3014-0085
e-mail | have21c@hrc.co.kr

기획조사

정한울 여론분석 전문위원

전화 | 02-3014-1057
e-mail | hw.jeong@hrc.co.kr

국정지표

오승호 차장

전화 | 02-3014-0167
e-mail | shoh@hrc.co.kr

목 차

CONTENTS

주요 조사결과	4
1. 현안 조사: 댓글에 대한 인식과 영향력	7
2. 국정 지표	15
3. 조사 개요	24

1

현안조사 : 댓글에 대한 인식과 영향력

-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에 이어, 댓글이 다시 한 번 정치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지난 4월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일명 ‘드루킹’ 사건)은 지루한 정치공방 끝에 결국 특검 수사로 진실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 과연 댓글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사람들은 댓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이번 달의 주제는 댓글의 인식과 영향력입니다.
- 뉴스를 읽을 때 댓글도 같이 읽는다는 응답이 90%나 되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주요 댓글 몇 개만 읽지 않고, 다른 댓글도 읽고 다른 사람의 댓글에 ‘공감’/‘비공감’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댓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 댓글을 읽으며 가장 많이 경험하는 감정은 ‘거부감’ 과 ‘다름’이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무례한 표현 때문에 불쾌감을 느끼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음을 댓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은 댓글의 여론 대표성과 댓글 내용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댓글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이 자극적인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다고 생각하며, 댓글 내용이나 주장은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수의 ‘공감’을 받은 베플에 대한 인식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 많은 ‘공감’으로 만들어진 베플의 내용이 다수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 반면 댓글을 읽으며 공감이나 재미를 경험하고, 새로운 정보도 알게 되는 등 긍정적인 경험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댓글의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댓글 자체를 없애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대신 댓글실명제 도입, 댓글 내용 모니터링 강화,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데에는 찬성합니다.
- 댓글의 영향력, 더 나아가 포털사이트가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이는 정책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엇갈립니다. 최근 제시되고 있는 여러 대안들 가운데 ‘공감순’ 정렬로 보여지는 베플기능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 뉴스 아웃링크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모두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견 교환과 소통이라는 순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여론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정지표 :

대통령 국정운영과 리더십평가, 정책 평가, 경제/안보인식

- 문재인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76%로 전월(73%) 대비 3%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상승세를 유지하다 지난 달 소폭 하락한 이후 다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연령대별로 50대, 지역별로는 서울,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컸습니다.
- 리더십 평가에서는 6가지 항목 중 원칙과 소신, 공직 인사, 위기상황 대처, 소통 부문에서는 지난달 대비 긍정 평가가 소폭 상승한 반면, 민생 안정과 통합 노력 부문에서는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 주요 10개 정책 중 잘한 정책과 못한 정책을 조사한 결과, ‘대북 정책’과 ‘외교 정책’을 잘한 정책으로 가장 많이 꼽았고, 반면 ‘일자리 및 고용 정책’과 ‘주거 및 부동산 정책’을 가장 못한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 경제인식 지수가 전달 -23에서 -20으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령대별로는 40대와 60세 이상,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 직업별로는 사무/관리/전문직 종사자에서는 오히려 감소하여 계층마다 체감하는 정도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 국가안보 지수는 +29에서 +30으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올해 1월에 -14로 시작하여 2월에 -4, 3월에 +16, 4월에 +29로 가파르게 상승세를 이어오다 소강 상태를 보이는 중입니다. 지난달 대비 연령대별로는 40대,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여론속의
여輿論論

CHAPTER



현안조사
댓글의 인식과 영향력

01

현안조사

1) 댓글에 대한 인식과 영향력

10명 중 9명,
인터넷에서 뉴스 읽을 때
댓글도 같이 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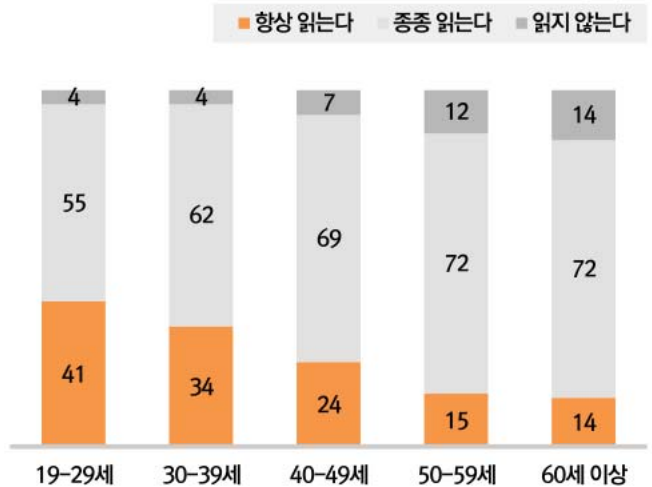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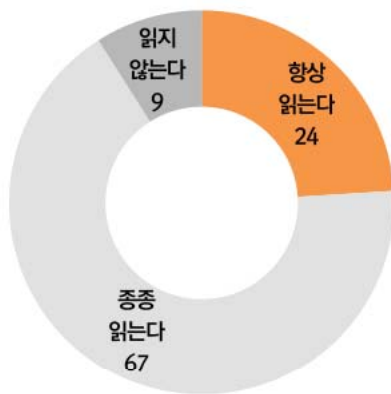
네이버 뉴스 이용자 중 댓글을 쓰는 사람의 비율은 1% 미만이라는 통계 결과가 있다.¹⁾ 1%의 사람들이 쓰는 댓글을 읽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포털사이트나 언론사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에서 뉴스를 읽을 때, 댓글도 항상 읽는다는 응답은 24%, 종종 읽는다는 응답은 67%였다. 1% 사람들이 쓰는 댓글을 90%의 사람들이 읽는 것이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댓글을 항상 읽는다는 비율이 높았다. 20대는 41%, 30대는 34%가 뉴스를 읽을 때 댓글을 항상 읽는다고 답했다.

Q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뉴스를 읽을 때, 댓글도 같이 읽으십니까?

(N=1,000, %)



1) 워드미터, 2018년 4월 14일 기준, 「네이버, 댓글을 공감순으로 줄세워... 여론조작 판 짰다」 (조선일보, 2018년 4월 20일,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20/2018042000214.html)에서 재인용

주요 댓글 읽는다 89%

댓글에 '공감', '비공감'한다 47%, 댓글 많은 뉴스 찾아 읽는다 36%

사람들은 주요 댓글 몇 개를 읽는 것을 넘어, 더 적극적으로 댓글을 찾아 읽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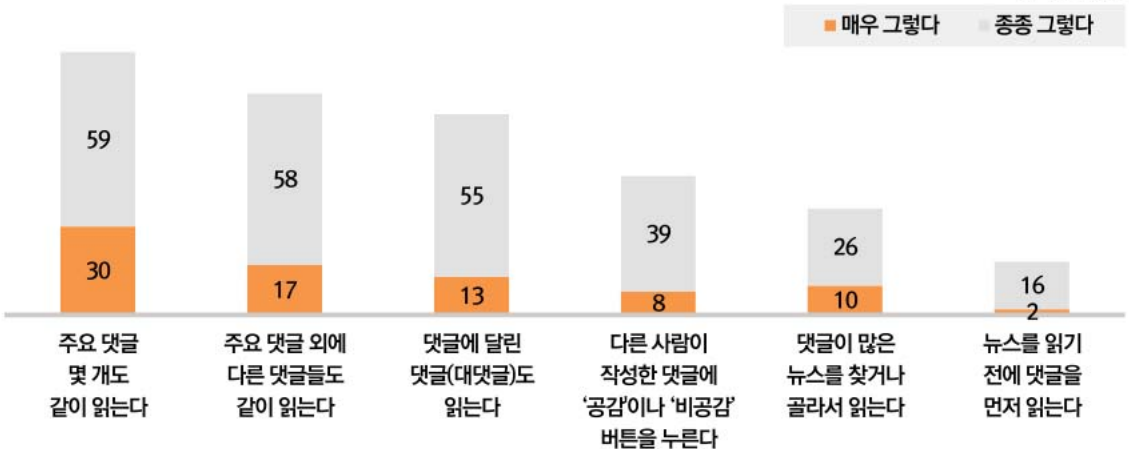
기사 바로 밑에 위치한 주요 댓글 몇 개를 읽는다는 응답은 89%였다. 주요 댓글 외에 다른 댓글도 읽는다는 응답은 75%, 댓글에 달린 댓글(대댓글)을 읽는다는 응답은 68%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댓글에 '공감'이나 '비공감' 버튼을 누른다는 응답은 47%였다.

댓글 자체를 읽기 위해 뉴스를 읽는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댓글이 많은 뉴스를 찾거나 골라서 읽는다는 응답은 36%였다. 뉴스를 읽기 전에 댓글을 먼저 읽는다는 응답도 18%에 달했다.

댓글을 항상 읽는다는 비율이 높았던 20대와 3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댓글을 더욱 적극적으로 읽고 있었다. 20대의 50%, 30대의 39%가 주요 댓글을 항상 읽는다고 답했으며, 다른 댓글을 읽는다는 응답 역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Q 평소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뉴스를 읽을 때, 귀하의 행동과 가장 가까운 것에 체크해 주세요

(N=1,000, %)



매우 그렇다 응답비율, %

Base=전체	사례수 (명)	주요 댓글 몇 개도 같이 읽는다	주요 댓글 외에 다른 댓글들도 같이 읽는다	댓글에 달린 댓글(대댓글)도 읽는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댓글에 '공감'이나 '비공감' 버튼을 누른다	댓글이 많은 뉴스를 찾거나 골라서 읽는다	뉴스를 읽기 전에 댓글을 먼저 읽는다
전체	(1,000)	30	17	13	8	10	2
연령							
19-29세	(175)	50	23	23	16	16	5
30-39세	(173)	39	25	17	15	15	3
40-49세	(203)	28	12	10	9	9	2
50-59세	(201)	18	12	9	4	4	1
60세이상	(248)	21	17	8	9	9	2

댓글 읽은 후 경험, 거부감 > 다름 > 공감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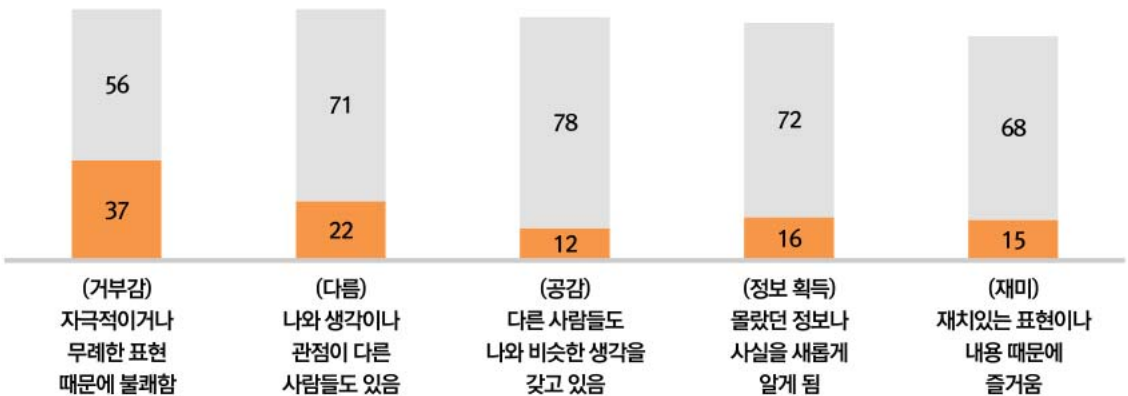
댓글을 읽은 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은 '거부감'이었다. 댓글을 읽고 난 후 자극적이거나 무례한 표현 때문에 불쾌감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은 93%였으며, 특히 37%는 그 경험이 매우 많다고 답했다. 특히 20대 중에서는 54%가, 자신의 이념성향을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는 48%가 거부감을 느낀 경험이 매우 많다고 답했다.

나와 생각이나 관점이 다른 사람도 있음을 느낀 경험도 93%로 뒤를 이었고, 다른 사람들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음을 느낀 경험은 90%, 몰랐던 정보나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된 경험은 88%, 재치있는 표현이나 내용 때문에 즐거움을 느낀 경험은 83%였다.

댓글을 적극적으로 읽는 성향이 강했던 20대는 거부감 외에 다름이나 정보 획득, 재미를 경험한 빈도도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30대도 댓글을 통해 정보를 얻거나 재미를 느낀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Q 뉴스기사의 댓글을 읽고 다음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N=1,000, %)

■ 매우 많다 ■ 종종 있다


매우 많다 응답 비율, %

Base=전체	사례수 (명)	(거부감) 자극적이거나 무례한 표현 때문에 불쾌감을 느낀 경험	(다름) 나와 생각이나 관점이 다른 사람들도 있다고 느낀 경험	(공감) 다른 사람들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느낀 경험	(정보 획득) 몰랐던 정보나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된 경험	(재미) 재치있는 표현이나 내용 때문에 즐거움을 느낀 경험
■ 전체 ■	(1,000)	37	22	12	16	15
연령						
19-29세	(175)	54	33	16	27	26
30-39세	(173)	34	24	18	25	24
40-49세	(203)	33	19	12	10	12
50-59세	(201)	32	19	6	10	11
60세 이상	(248)	35	17	10	10	8
이념성향						
진보	(317)	37	27	17	15	17
중도	(385)	30	16	8	15	14
보수	(272)	48	26	13	17	16
모름	(26)	27	12	4	16	16

댓글의 영향력은 인정 여론 대표성과 내용의 신뢰도에는 의문

사람들은 댓글이 뉴스를 읽는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영향을 준다고 51%, 영향을 주지 않는다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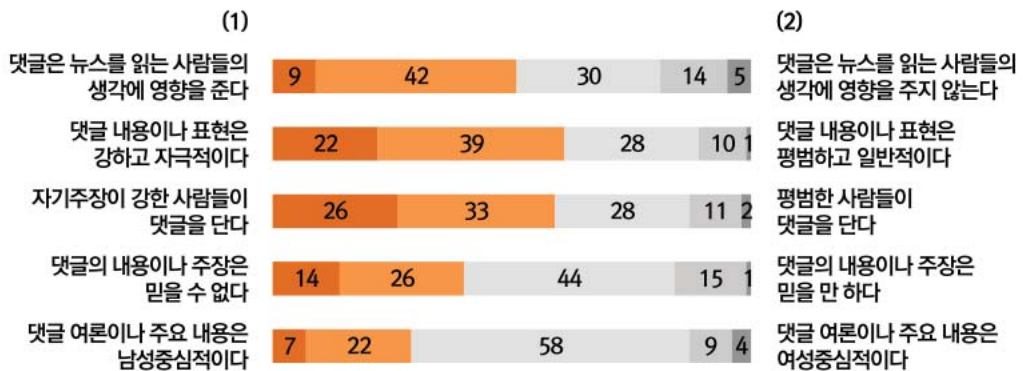
영향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댓글의 내용이 실제 여론을 대표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었다. 댓글의 내용이나 표현은 강하고 자극적(61%)이며,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댓글을 단다고 인식(59%)하고 있었다. 댓글 내용이나 주장의 신뢰도 역시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다. 믿을 수 없다는 의견(40%)이 믿을 만 하다는 의견(16%)보다 높았다.

한편 댓글 여론이나 주요 내용이 남성중심적이라는 의견(29%)이 여성중심적이라는 의견(13%)보다 높았다.

Q 뉴스기사의 댓글에 대한 다음 의견 중, 귀하의 생각과 가까운 것에 체크해 주세요

(N=1,000, %)

■ (1)에 훨씬 가깝다 ■ (1)에 좀 더 가깝다 ■ 어느 쪽도 아니다 ■ (2)에 좀 더 가깝다 ■ (2)에 훨씬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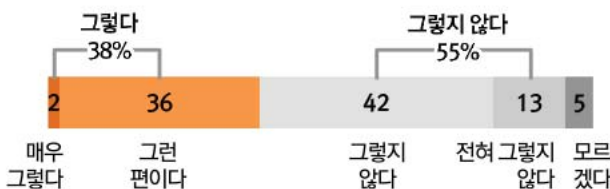
베플, 다수의 의견이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55%

댓글이 여론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인식은 다수의 '공감'을 얻은 베플에 대한 생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베플'의 내용은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이나 주장과 일치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55%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 그렇다는 응답(38%)보다 높았다.

특히 60세 이상(일치하지 않는다 66%)과 '보수'성향 응답자(일치하지 않는다 65%)에서 부정 응답이 많았다. 반면 댓글을 항상 읽는다는 응답자는 긍정 응답이 더 많았다(일치한다 53%).

Q 베플의 내용은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이나 주장과 일치한다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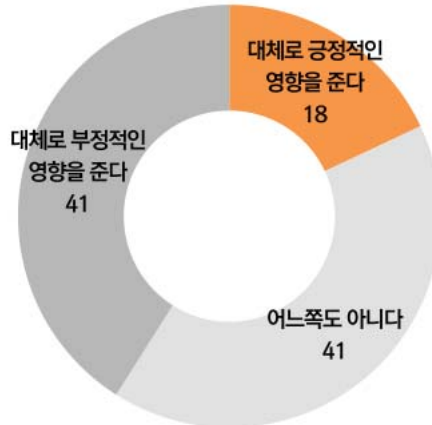
	사례수 (명)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계
■ 전체 ■	(1,000)	38	55	7	100
연령 60세 이상	(248)	26	66	7	100
이념성향 보수	(272)	30	65	6	100
댓글 항상 읽음	(244)	53	41	6	100

댓글 영향력 부정적이다, 41%

댓글의 전반적인 영향력을 묻는 질문에 41%가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해,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응답(18%)보다 높았다. 댓글의 한계와 부정적인 측면을 인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Q 전반적으로 봤을 때, 뉴스기사의 댓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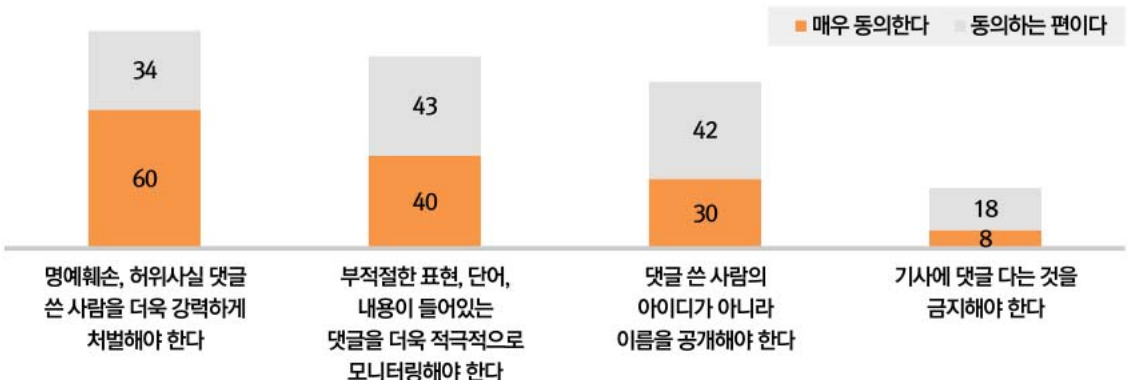
댓글 금지는 반대, 댓글 규제 강화는 찬성

댓글의 여론 대표성과 내용의 신뢰도에는 부정적인 의견이지만, 댓글 자체를 못 쓰게 하는 것에는 반대 의견이 더 높았다. 공감과 즐거움 등 댓글의 긍정적 영향력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이다.

기사에 댓글 다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는 찬성(26%)보다 반대(74%)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댓글 쓴 사람의 아이디가 아니라 이름을 공개하는 이른바 '댓글실명제'에는 찬성(72%)이 반대(28%)보다 우세했다. 정부 또는 사이트 관리자가 부적절한 표현, 단어, 내용이 들어있는 댓글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찬성 84%)하는 것과,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이 포함된 댓글을 쓴 사람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찬성 94%)하는 것은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Q 다양한 뉴스 댓글 관련 정책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체크해 주세요

(N=1,000, %)



'공감순' 정렬 베플기능 폐지 찬성46%, 반대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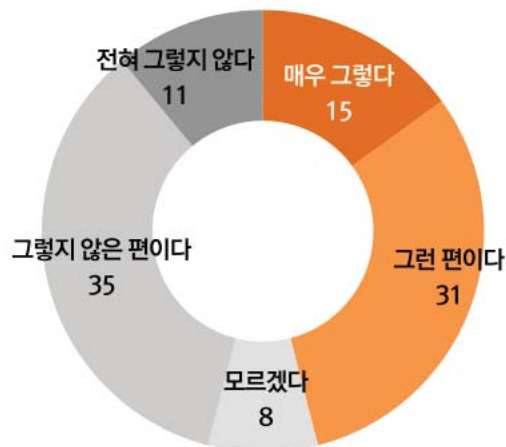
다수의 '공감'을 받은 댓글은 베플이 되어 뉴스기사 바로 밑에 배치되어 다수에게 노출된다. 베플을 통해 다수의 공감을 얻은 의견이나 주장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베플이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르다.

베플에 대한 엇갈린 인식은 '공감순' 정렬 베플기능을 없애야 할지 묻는 문항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공감순' 베플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6%로 동일했다(모르겠다 8%).

20대와 30대, 그리고 중도 성향 응답자는 '공감순' 베플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없애야 한다는 의견보다 우세했다. 댓글을 항상 또는 종종 읽는 응답자들도 오차범위 내지만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반면 50대와 60세 이상, 그리고 보수 성향의 응답자는 '공감순' 베플 기능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Q '공감순' 정렬로 보여지는 베플 기능을 없애야 한다

(N=1,000, %)



Base=전체	사례수 (명)	그렇다 (매우 +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 그렇지 않은 편이다)	모르겠다	계
▣ 전체 ▣	(1,000)	46	46	8	100
연령					
19-29세	(175)	37	55	8	100
30-39세	(173)	37	55	8	100
40-49세	(203)	45	46	9	100
50-59세	(201)	54	38	8	100
60세이상	(248)	52	39	9	100
이념성향					
진보	(317)	47	47	7	100
중도	(385)	39	51	10	100
보수	(272)	57	36	6	100
모름	(26)	26	51	23	100
댓글 읽는 빈도					
항상 읽는다	(244)	44	50	7	100
종종 읽는 편이다	(666)	44	47	8	100
읽지 않는다	(90)	63	25	12	100

아웃링크 정책 찬성 45%, 반대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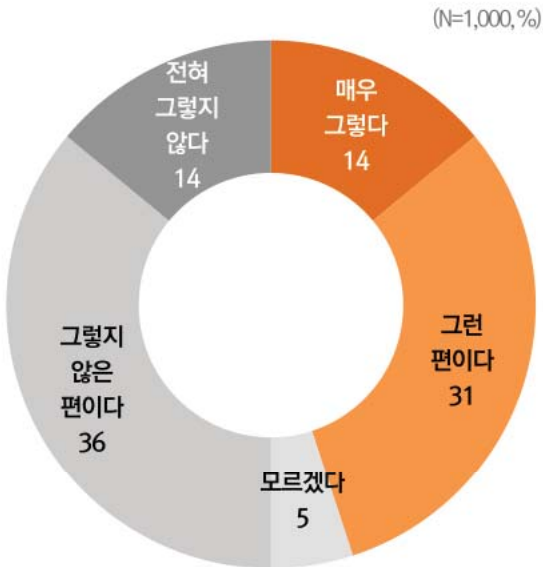
뉴스 댓글의 영향력, 더 나아가 포털사이트 뉴스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최근 논의되는 정책 중 하나는 뉴스 아웃링크제(뉴스를 포털사이트 내부 페이지가 아닌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것) 도입이다.

포털사이트가 뉴스를 선택해 메인화면에 게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포털사이트가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아웃링크 도입 찬성측의 주장이다. 반면, 현재의 인링크 방식은 언론사 홈페이지에 일일이 찾아 들어가지 않고 포털사이트에서 여러 언론사의 다양한 뉴스를 쉽게 읽을 수 있어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뉴스 아웃링크제 도입에 대한 질문에선 찬반이 엇갈렸다. 반대(50%)가 찬성(45%)보다 약간 더 우세했으나 오차범위 내였다.

20대부터 40대, 그리고 중도 성향 응답자는 뉴스 아웃링크제 도입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댓글을 항상 또는 종종 읽는 응답자들도 뉴스 아웃링크제 도입 반대 의견이 다소 높았다. 반면 50대와 60대, 보수 성향 응답자는 뉴스 아웃링크제 도입 찬성 의견이 다소 높았다.

Q 포털사이트는 뉴스 검색 결과와 링크만 제공하고, 실제 뉴스 기사는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보게 해야 한다



Base=전체	사례수 (명)	그렇다 (매우 + 그런 편이다)	그렇지않다 (전혀 + 그렇지않은 편이다)	모르겠다	계
■ 전체 ■	(1,000)	45	50	5	100
연령					
19-29세	(175)	39	54	8	100
30-39세	(173)	38	57	5	100
40-49세	(203)	43	54	3	100
50-59세	(201)	53	43	4	100
60세이상	(248)	49	44	7	100
이념성향					
진보	(317)	49	48	3	100
중도	(385)	39	53	8	100
보수	(272)	51	45	4	100
모름	(26)	11	70	19	100
댓글 읽는 빈도					
항상 읽는다	(244)	43	53	4	100
종종 읽는 편이다	(666)	45	50	5	100
읽지 않는다	(90)	50	35	16	100

담당자 이동한 과장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여론 속의
여輿論論

CHAPTER

02

국정지표

02

국정지표

1)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
지난달 대비 소폭 상승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76%는 잘하고 있다고 한 반면, 17%는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비율은 지난달 대비 3%포인트(73% → 76%) 소폭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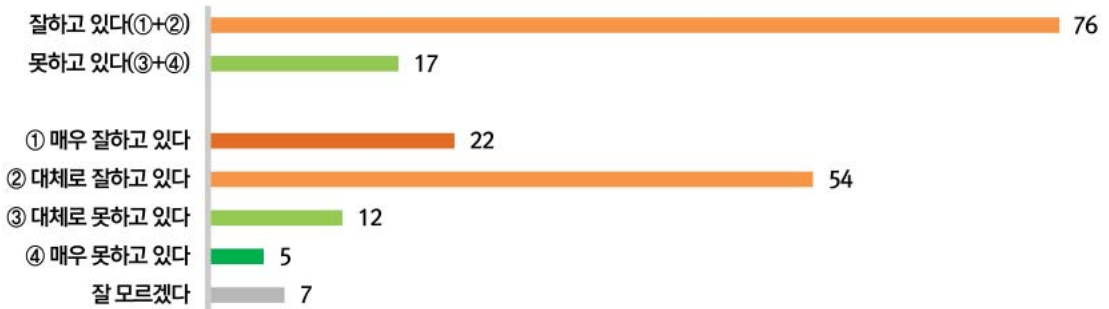
연령대별로는 20대 81%, 30대 85%, 40대 83%, 50대 80%, 60세 이상 59%이며, 50대에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지역별로는 서울 76%, 인천/경기 79%, 대전/세종/충청 74%, 광주/전라 91%, 대구/경북 62%, 부산/울산/경남 76%이며, 지난달 대비 서울에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94%, 중도 81%, 보수 50%로 지난달 대비 중도층에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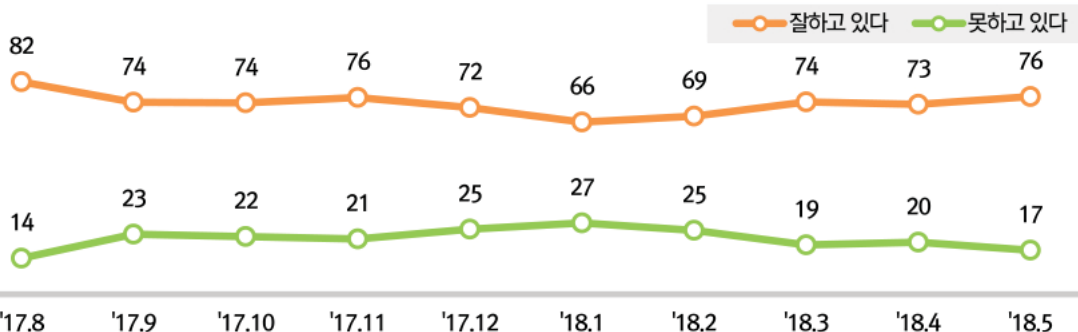
잘하고 있다 76%, 못하고 있다 17%

(N=1,000, %)



지난달 대비 3%포인트 소폭 상승

(N=1,000, %)



연령대, 거주지역, 이념성향별 국정운영 긍정평가추이

지난달 대비 50대에서 상승폭 가장 커

(N=1,000, %, %p)

	'17.8	'17.9	'17.10	'17.11	'17.12	'18.1	'18.2	'18.3	'18.4	'18.5	전월 대비
전체	82	74	74	76	72	66	69	74	73	76	+3
19-29세	88	86	83	87	85	67	74	73	78	81	+3
30-39세	90	89	85	86	92	77	81	81	87	85	-2
40-49세	90	85	82	89	75	78	77	88	82	83	+1
50-59세	78	64	71	70	69	66	71	76	70	80	+10
60세 이상	68	54	54	54	47	48	47	58	56	59	+3

지난달 대비 서울에서 상승폭 가장 커

(N=1,000, %, %p)

	'17.8	'17.9	'17.10	'17.11	'17.12	'18.1	'18.2	'18.3	'18.4	'18.5	전월 대비
전체	82	74	74	76	72	66	69	74	73	76	+3
서울	80	73	69	77	68	60	68	74	69	76	+7
인천/경기	84	76	78	77	74	68	71	76	77	79	+2
대전/세종/충청	82	77	71	73	81	72	66	73	73	74	+1
광주/전라	91	91	82	86	93	84	85	90	87	91	+4
대구/경북	72	61	62	65	57	60	62	59	60	62	+2
부산/울산/경남	82	70	75	76	64	62	59	71	71	76	+5

지난달 대비 중도층에서 상승폭 가장 커

(N=1,000, %, %p)

	'17.8	'17.9	'17.10	'17.11	'17.12	'18.1	'18.2	'18.3	'18.4	'18.5	전월 대비
전체	82	74	74	76	72	66	69	74	73	76	+3
진보	95	93	92	92	89	88	88	93	93	94	+1
중도	81	77	75	79	75	70	73	74	73	81	+8
보수	65	50	50	52	51	41	47	51	48	50	+2

02

국정지표

2) 대통령 리더십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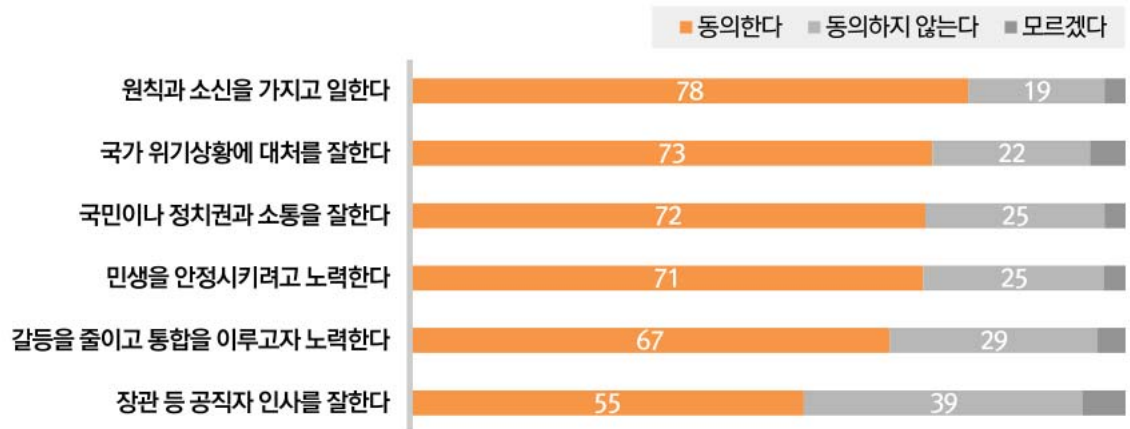
민생 안정과 통합노력 부문 소폭 하락

대통령 리더십을 6가지 차원으로 각각 평가하게 한 결과, 원칙과 소신에 대한 긍정평가가 7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위기상황대처(73%), 소통(72%), 민생 안정(71%), 통합노력(67%), 공직인사(55%) 순이었다.

리더십 차원별 평가 추이를 보면, 지난달 대비 민생 안정과 통합노력 부문의 긍정평가 비율이 소폭 하락하였다.

원칙과 소신에 대한 평가 가장 높고, 공직 인사 평가 가장 낮아

(N=1,000, %)



지난달 대비 민생 안정과 통합 노력 부문 소폭 하락

(N=1,000, 동의한다%, %p)

	'17.8	'17.9	'17.10	'17.11	'17.12	'18.1	'18.2	'18.3	'18.4	'18.5	전월 대비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일한다	81	76	77	77	75	72	72	78	74	78	+4
국가 위기상황에 대처를 잘한다	68	58	59	72	66	59	62	70	71	73	+2
국민이나 정치권과 소통을 잘한다	81	72	75	72	72	69	68	72	71	72	+1
민생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한다	84	79	76	78	75	73	69	71	73	71	-2
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이루고자 노력한다	75	69	68	67	65	62	62	66	68	67	-1
장관 등 공직자 인사를 잘한다	58	50	49	54	51	52	51	57	51	55	+4

02

국정지표
3) 정책 평가

**잘한 정책으로
대북 및 외교 정책을
꼽은 반면,
못한 정책으로
일자리 고용 정책,
주거 및 부동산 정책을
주로 꼽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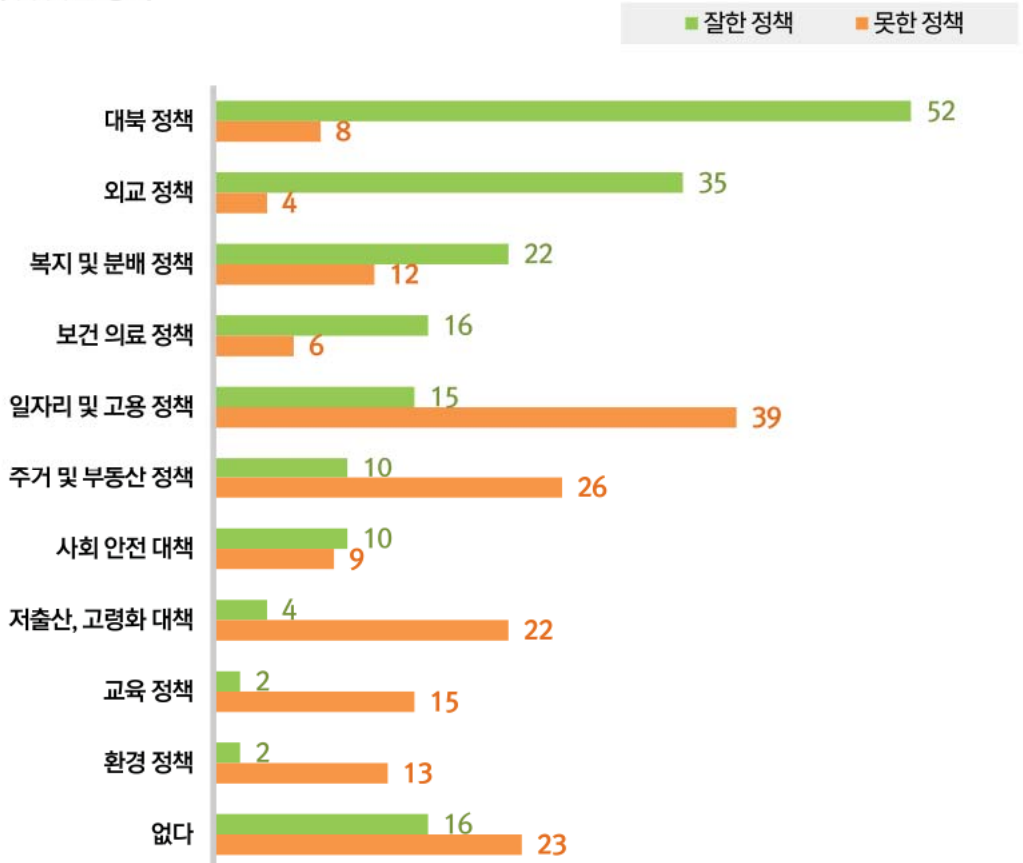
주요 10개 정책 중 가장 잘한 정책과 못한 정책을 두 개씩 선택하게 한 결과,

가장 잘한 정책으로는 '대북 정책'(52%)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외교 정책'(35%), '복지 및 분배 정책'(22%), '보건 의료 정책'(16%), '일자리 및 고용 정책'(15%), '주거 및 부동산 정책'(10%), '사회 안전 대책'(10%), '저출산, 고령화 대책'(4%), '교육 정책'(2%), '환경 정책'(2%) 등의 순이었다.

가장 못한 정책으로는 '일자리 및 고용 정책'(39%)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주거 및 부동산 정책'(26%), '저출산, 고령화 정책'(22%), '교육 정책'(15%), '환경 정책'(13%), '복지 및 분배 정책'(12%), '사회 안전 대책'(9%), '대북 정책'(8%), '보건 의료 정책'(6%), '외교 정책'(4%) 등의 순이었다.

잘한 정책 및 못한 정책

(N=1,000, 1+2순위%)



02

국정지표
4) 국가 경제 인식

국가경제 인식지수
-20
지난달 대비
3포인트 상승

국가경제에 대한 인식을 현재 상황 평가와 이후 전망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뒤, 평가와 전망의 순 긍정 응답비율을 산술평균 하여 지수화(-100과 100사이의 값)하였으며, 이는 미국갤럽의 경제인식 인덱스(Gallup's U.S. Economic Confidence Index)를 참고하였다.

국가 경제 인식 지수는 -20으로 지난달(-23) 대비 3포인트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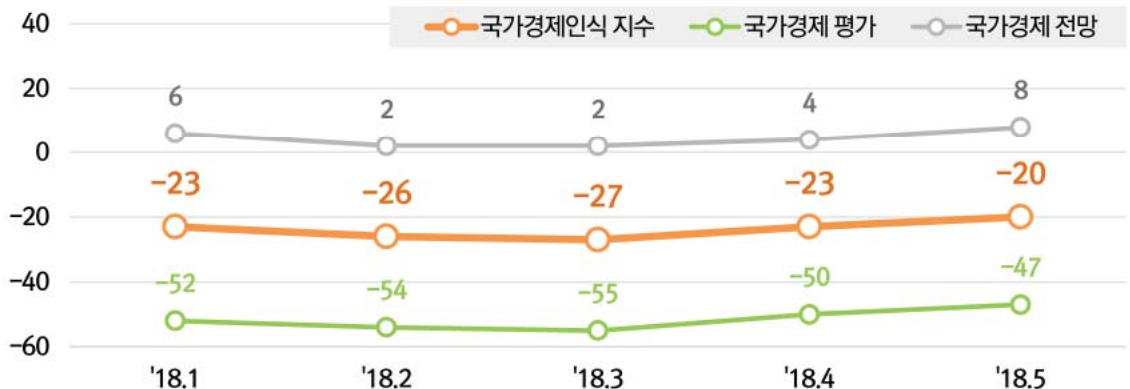
경제 인식 지수 산출 방식

(N=1,000)

우리나라 경제상황 평가	좋다 (a)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나쁘다 (b)	모르겠다	계	좋다-나쁘다 (a-b)
	9%	34%	56%	1%	100%	-47(A)
우리나라 경제상황 전망	나아질 것이다(c)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d)	모르겠다	계	나아질 것- 나빠질 것 (c-d)
	37%	32%	29%	2%	100%	+8(B)
국가경제인식(지수): A와 B의 평균						-20

국가경제 인식지수 지난달 대비 3포인트 상승

(N=1,000, 포인트)



연령대, 거주지역, 직업별 국가 '경제' 인식지수 추이

지난달 대비 40대와 50대에서 상승폭 가장 커

(N=1,000, 포인트)

	'18.1	'18.2	'18.3	'18.4	'18.5	전월 대비
전체	-23	-26	-27	-23	-20	+3
19-29세	-25	-16	-20	-16	-20	-4
30-39세	-12	-20	-17	-8	-9	-1
40-49세	-12	-13	-16	-23	-7	+16
50-59세	-26	-29	-30	-30	-20	+10
60세 이상	-36	-46	-45	-34	-40	-6

지난달 대비 서울에서 상승폭 가장 커

(N=1,000, 포인트)

	'18.1	'18.2	'18.3	'18.4	'18.5	전월 대비
전체	-23	-26	-27	-23	-20	+3
서울	-25	-25	-28	-28	-17	+11
인천/경기	-25	-27	-22	-20	-20	0
대전/세종/충청	-22	-31	-23	-22	-30	-8
광주/전라	-4	-7	2	-1	+3	+4
대구/경북	-32	-31	-49	-38	-33	+5
부산/울산/경남	-22	-31	-44	-27	-23	+4

지난달 대비 생산/기능/노무직에서 상승폭 가장 커

(N=1,000, 포인트)

	'18.1	'18.2	'18.3	'18.4	'18.5	전월 대비
전체	-23	-26	-27	-23	-20	+3
자영업	-31	-35	-37	-41	-37	+4
판매/영업/서비스	-24	-16	-23	-21	-13	+8
생산/기능/노무	-13	-22	-12	-22	-13	+9
사무/관리/전문	-19	-22	-15	-6	-13	-7
주부	-32	-35	-31	-29	-24	+5
학생	-10	-11	-30	-26	-21	+5
무직/퇴직/기타	-19	-27	-35	-26	-20	+6

02

국정지표

5) 국가 안보 인식

국가안보 인식지수
+30
지난달 대비
1포인트 상승

경제인식 인덱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을 현재 상황 평가와 이후 전망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뒤, 평가와 전망의 순 긍정 응답비율을 산술평균 하여 지수화(-100과 100사이의 값)했다.

국가 안보 인식 지수는 +30으로 지난달(+29) 대비 1포인트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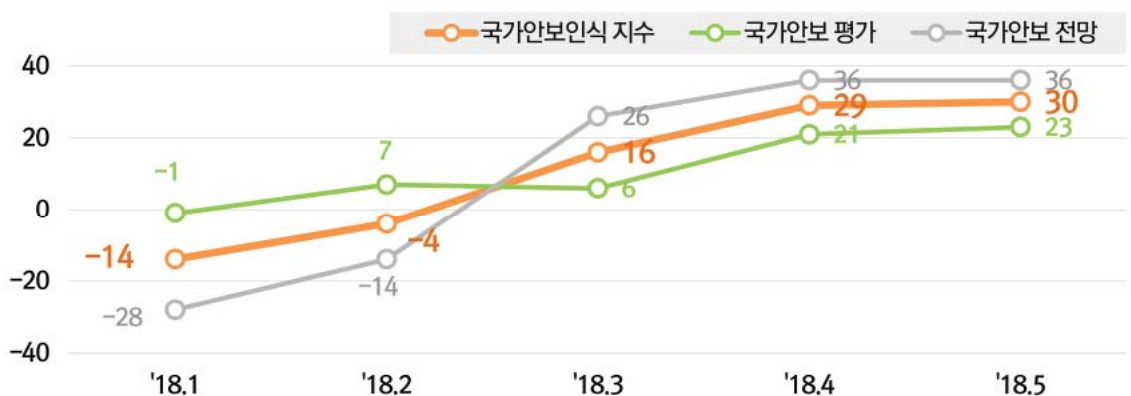
안보 인식 지수 산출 방식

(N=1,000)

우리나라 안보상황 평가	좋다 (a)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나쁘다 (b)	모르겠다	계	좋다-나쁘다 (a-b)
	43%	35%	20%	2%	100%	+23(A)
우리나라 안보상황 전망	나아질 것이다(c)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d)	모르겠다	계	나아질 것- 나빠질 것 (c-d)
	51%	32%	15%	2%	100%	+36(B)
국가안보인식(지수): A와 B의 평균						+30

국가안보 인식지수 지난달 대비 1포인트 상승

(N=1,000, 포인트)



연령대, 거주지역, 이념성향별 국가 '안보' 인식지수 추이

지난달 대비 40대에서 상승폭 가장 커

(N=1,000, 포인트)

	'18.1	'18.2	'18.3	'18.4	'18.5	전월 대비
전체	-14	-4	+16	+29	+30	+1
19-29세	-8	+10	+18	+35	+30	-5
30-39세	+2	+9	+25	+35	+38	+3
40-49세	+3	+10	+36	+36	+43	+7
50-59세	-18	-1	+18	+29	+34	+5
60세 이상	-42	-37	-9	+15	+10	-5

지난달 대비 광주/전라에서 상승폭 가장 커

(N=1,000, 포인트)

	'18.1	'18.2	'18.3	'18.4	'18.5	전월 대비
전체	-14	-4	+16	+29	+30	+1
서울	-24	-10	+15	+29	+31	+2
인천/경기	-14	-3	+23	+35	+31	-4
대전/세종/충청	-11	-13	+20	+24	+25	+1
광주/전라	+8	+24	+42	+49	+60	+11
대구/경북	-29	-5	-15	+8	+10	+2
부산/울산/경남	-11	-9	+4	+23	+30	+7

지난달 대비 중도에서 상승폭 가장 커

(N=1,000, 포인트)

	'18.1	'18.2	'18.3	'18.4	'18.5	전월 대비
전체	-14	-4	+16	+29	+30	+1
진보	+16	+28	+51	+63	+63	0
중도	-10	-6	+11	+22	+32	+10
보수	-52	-36	-20	-7	-11	-4

담당자 오승호 차장

전화 | 02-3014-0167

e-mail | shoh@hrc.co.kr

여론속의
여輿論論

CHAPTER

03

조사개요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MS 패널(2017년 12월 기준 40만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기준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림가중) (2018년 1월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메일 발송 8,582명, 조사참여 1,448명, 조사완료 1,000명 (발송자 대비 11.7%, 참여자 대비 69.1%, 유효 참여자 대비 83.3%)
조사일시	• 2018년 5월 18일~22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월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40 YEARS Hankook Research

